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우리가 가는 길

성경: 누가복음 9장 57-62절

Tag: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9:57-62)

예수님께 감동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다짐을 말하였다.

57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마도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행적에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마도 그 사람을 번민케 하였을 것 같다.

왜냐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에 공감하며 전적으로 응원하는 자가 없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정부의 내각 조각과 관련하여 옥신각신하는 지경이었으니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랴.

당시에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도 그런 점들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예수님의 집이 없거나,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은 있지만 주로 광야에서 생활하셨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영과 감정과 몸을 의탁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머물러야 하셨던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할 기한이다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려고 하셨다.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 셈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우회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행하시려 하셨다. 그에 앞서서 큰 규모의 군중이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하룻밤 지내셔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심부름꾼들을 미리 파견하셨다. 미리 여러채의 숙소를 잡거나 큰 규모의 식당을 섭외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보건대 이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루살렘행 행군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에서는 이 대열을 맞이할지 말지를 두고 갑론을박 하였고, 길을 내어 주어서는 않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숙소도 구하지 못했고, 식당도 구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은 우회로를 찾아 다른 마을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제자들은 화났다. 혈기 왕성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참을 수 없어서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할까요?’ 하고 여쭙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무슨 못된 말이냐?’ 정도이지 않았을까.

하는 수 없이 안양에서 거부하니 과천을 통과해서 갈 수 밖에 없으셨다. 틀림없이 큰 돈벌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을의 촌장은 아마도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싫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으셨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누가 두 이야기를 바로 연이어 기술했으니, 연관 가능성을 짐작은 해 볼만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지 모른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외로운 길을 가시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 그나마 예수님을 편안하게 해 주는 자들이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대치를 이루고 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점점 꼬여가는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어 서로의 기능을 인정해주거나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아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 386과 MZ세대로 나뉘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정신으로 삼고 있지만 끊임 없이 헌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과 직면해 있다. 문제는 갈등의 상처가 아물어가지 않고 더 심하게 서로를 반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갈등의 시대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수 많은 지도자급 목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는 목사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성도들이 우왕 좌왕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단들의 무논리에도 휘청거렸던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제는 논리로 완전무장하고 감언이설로 포장한 교계 지도자들이 가슴에 와 닿지는 않지만, 웬지 따라가야 할 것 같은 율법주의로 포장된 설교를 설파한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야 할까?

누가 뭐래도 정답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은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다.

예수님의 길은 율법주의로 강요된 길이 아니다.

예수님의 길은 싸우고 대적하는 길이 아니다.

다만, 그 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이니,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지만,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다.

누구나 화려한 길을 걷고 싶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어가라는 인사말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외로워도 슬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내게는 꽃길이다. 언제나 이 길이 끝나나 싶지만, 그래도 사명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누군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나를 방해한다. 누군가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따진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이 진실한 길이고, 그 길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길이 내가 걷고싶은 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 같이 동행했으면 하는 청년을 발견하였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가 연로 하시니 효도를 마친 다음에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참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듬직한 청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청년은 ‘먼저’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 코칭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순간 순간 우선 해야 할 일을 놓친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셔서 초상을 치루어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평상시 이 친구는 부모공경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평소의 신념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의 신념을 먼저 지키고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쪽도 만족하고 저쪽도 만족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나를 지혜로운 말이지만,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야 하는데, 이 청년은 그런 것까지 알지 못하고 한 말이다.

-그래서 초상을 치루는 것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초상 치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초상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초상과 관련해서 어마 어마한 관례들이 많다. 그러나 기독교는 장례와 관련된 간단한 예식을 가지고 있다.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는 기일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없다.

-동양문화권에서는 기일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기독교에서는 기일을 지키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나 남겨진 유족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저승이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운 사람을 새 몸을 입고 만나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먼저 몰두하라 하신 것이다.

61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곁에 있던 어떤 사람은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 말은 주의 일과 관련된 일에 세속적인 일을 끼워 넣지 말라는 뜻이다.

-세속적인 일에는 주의 빛이 비추고, 주의 향기가 퍼지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주의 일에는 세속적인 목적과 의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 일을 우리는 거룩하다 표현한다. 주일은 거룩하며, 주의 일은 거룩하다. 생각이나, 일이든지, 약속이든지, 모임이든지 주일에는 조심해야 한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나쁜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과제를 앞두고 할 일은 아니다.

-이는 마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운전대를 잡고 휴대폰을 보는 것과 같다. 순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감시 카메라에 찍히게 된다.

-예배 중에 카톡 들여다 본다든지, 예배당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린다든지 하면 시간 놓치게 되고 정신줄 놓치게 된다.

-아마도 본문의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인사치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작별인사를 하는것에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아마 사랑하는 애인이 고향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도 중대한 일을 두고 대열을 이탈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사소한 일을 중하게 여기느라, 주의 거룩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